

### “문화가 있는 해양도시 건설”

남해안발전연 13일 기념음악회



<이혜란>



<김중국>

남해안 발전연 구소(이사장 이혜란) 창립 기념 음악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여도 오케스트라(지휘 김문)가 들려주는 베르디의 '탄크레디' 서곡과 파벨렐의 '개논'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김영옥씨가 창작 관소리 '이순신' 중 '노랑해진 및 순국'을 들려주며 베이스 김종국씨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소문은 미풍처럼 퍼져나가고'를 선사한다.

또 주요연·이은주·박영집씨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 '칼리오페'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피아니스트 이해란씨는 슈만의 '카니발 작품번호 9'를 연주한다.

지난 2000년 설립 후 201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남해안 발전연구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 발전연구를 통해 문화가 있는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준비하는 시민참여형 모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무등미술대전 공모

13일 광주 등 전국 7곳서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제27회 무등미술대전 일정을 확정하고 출품작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화, 문인화, 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오는 6월13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접수를 받는다.

응모작은 국내외에서 출품된 적이 없는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입상자는 오는 17일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문의 062-233-192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伊 프리울리와 문화 교류 협약 세계 최고 모자이크 학교 광주 오나

광주시에 이탈리아 프리울리 주정부와 문화 교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세계 최고 모자이크 학교 프리울리 아시아 분교가 광주에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리울리 첫 해의 분교가 광주에 건립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고 3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고부가가치 산업, 모자이크=지난 1922년 설립된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의 특징은 전교생이 전혀 학비를 내지 않는 점이다. 퇴짜 '용돈'을 받고 다닌다. 비밀은 모자이크가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교수들 자체가 하나의 모자이크 브랜드이고, 컬렉터들이 앞다퉈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자이크 활용도가 다양해져 실내·외 장식을 비롯해 산업 디자인 곳곳에 쓰이고 있어 더욱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학생들 또한 졸업 후 공방을 내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모자이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모자이크 학교이며, 이탈리아의 천연석을 쪼개 만든 모자이크는 변색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일본이 프리울리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그동안 단 한곳의 분교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를, 건축,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자이크가 광주에 입성하면 광주는 새로운 문화 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고, 문화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예산 마련 등 넘어야 할 산도=프리울리 모

자이크가 광주에 첫 소개된 것은 지난 2009년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였다. 이 학교 교수들이 전시장에서 직접 돌을 쪼개 모자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고, 지난해 8월 화순군 동면(주)인스나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이 학교 교수 2명과 지역작가들이 협업으로 '일월오봉도'를 만들면서 기초적인 모자이크 기법도 전해졌다.

또 지난 3일 강은태 광주시장은 이탈리아 프리울리에서 마우리치오 프란츠 주시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고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 분교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1~2차례 심포지엄 등을 거쳐 최종 분교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프리울리 측과 세부 조건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교 유치는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학교건립비와 교수 초빙, 재료 등 기자재 구입, 운영비 등

### 산업디자인 곳곳 활용도 높아 세계에서 각종 예술·건축 등 새로운 문화산업 창출 기대 학비없이 수료...30억원 예산 마련은 숙제

분교 유치가 필요한 경비는 최대 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사 일정은 광주에서 2년 공부를 한 뒤 다시 이탈리아 현지에서 2년을 배우는 과정이다. 등록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투자가 필요한 것도 큰 부담이다.

이와 함께 단체에 주어지는 '고정희 재상'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에 돌아갔다.

이와 함께 단체에 주어지는 '고정희 재상'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에 돌아갔다.

해남 출신인 고정희 시인은 1979년 '누가 홀로 술을 받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11권의 시집을 펴냈으며, '또 하나의 문화'를 이끄는 등 여성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김대성기자 bigkim@

시인이자 여성운동가인 고(故) 고정희(1948~1991년) 시인의 삶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된 이 상은 여성간의 연대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페미니즘 실현에 이바지한 여성에게 격년으로 수여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8월 화순 동면(주)인스나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교수들이 지역 작가들에게 모자이크 기법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구두에 빚어 넣은 여성의 힘

이매리 30일까지 불가리 아트페어 참가

구두라는 형상을 통해 여성의 힘과 사랑을 담고 있는 서양화가 이매리씨가 오는 30일까지 불가리에서 열리는 페이퍼 아트페어, 소피아 비엔날레에 참가한다.



'구두의 초상'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신문지 등 종이를 몰려 족처럼 으깨 뒤 형상을 빚어 연작을 선보인다.

구직적인 배열에 따라 정사각형의 판을 설치한 뒤 맨 앞에 구두를 놓아 사물의 물성과 공간의 조화를 형상화했다. 종이의 특성이 잘 살아 있는 구두의 표면에는 거친 질감이 남아 있고, 구두 안에 화가의 실제 발을 본뜬 종이 조각을 넣어 묘한 울림도 준다.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향후 건설되는 소피아극립미술관에 소장되며, 이씨는 올 가을 미국 뉴욕 펠시 아트

뮤지엄과 그리스 데살로니키 갤러리에서 잇따라 순회전을 연다.

이씨는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뉴욕 엘가 워터갤러리 등지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고정희상'에 소설가 이경자씨

여성주의 문화단체(사)또하나문화회는 '제6회 고정희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경자(63·사진) 씨를 선정했다.

이경자씨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작소설 '절반의 실패'(1988년) 등 페미니즘 소설들을 발표해왔다.

시인이자 여성운동가인 고(故) 고정희(1948~1991년) 시인의 삶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된 이 상은 여성간의 연대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페미니즘 실현에 이바지한 여성에게 격년으로 수여된다.



이와 함께 단체에 주어지는 '고정희 재상'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에 돌아갔다.

해남 출신인 고정희 시인은 1979년 '누가 홀로 술을 받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11권의 시집을 펴냈으며, '또 하나의 문화'를 이끄는 등 여성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한류스타와 오감만족 광주여행

광주문화재단, 하나투어 등 상품개발 협약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그룹(주)하나투어인터내셔널과 일본 전문여행사(주)드림랜드가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오감만족 광주여행' 등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비롯한 공동투자에 나선다.

광주문화재단은 9일 재단 회의실에서 (주)하나투어인터내셔널 왕인덕 대표, (주)드림랜드 현광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상품개발' 공동투자·공동기획 다자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광주 출신 원조 한류스타

김연자 공연을 중심으로 김치타운 체험 등 문화를 테마로 한 '오감만족 광주여행'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지 홍보마케팅 등 투자협력이 추진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초 예정된 '오감만족 광주여행'행사에 일본인 관광객 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주)하나투어인터내셔널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모객 및 광주투어를 담당하고, (주)드림랜드 측은 올해 행사를 위한 전세계 투입을 추진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6월 22일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30% 확 높아진 알뜰 좌석간격

\* 프리미엄 인터리어, 아름다운 홀

\*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 더 넓고 넓어진 주차공간

\* 동성천 자오펬 이벤트(일요일, 무로, 19시, 20시)

www.cinus.co.kr

ARS 1544-0070

상당원원길 광범-1(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상무점 **모든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극장 프리미엄 인터리어, 아름다운 홀 이제 다리벌고 영화보자

30% 확 높아진 알뜰 좌석간격

**TAKE OUT ITALY**

12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커피 LAVAZZA 런칭 더 넓고 넓어진 주차공간

내부 리뉴얼 공사로 인해 6월 21일까지 임시휴관합니다.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1관	쿵푸팬더2 (전세)
2관	모비딕 (15세)
3관	씨니 (15세)
4관	씨니 (15세)
5관	모비딕 (15세)
6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7관	스크림4G(12세)/레지던트 (18세)
8관	프리스트 (15세)/마마 (12세)
9관	마마(12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15세)
10관	쿵푸팬더2 (전세)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최고급관
2관	모비딕 (15세)
3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4관	스크림4G (12세)
5관	캐리비안의해적-낯선조류 (12세)
6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7관	씨니 (15세)
8관	모비딕 (15세)/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9관	스크림4G (12세)/쿵푸팬더2 (전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그분이 돌아오셨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쿵푸팬더2 (전세)
2관	마마 (12세)
3관	레지던트 (18세)
4관	캐리비안의해적-낯선조류 (12세)
5관	모비딕 (15세)
6관	프리스트 (15세)
7관	화이트-저주의멜로디 (15세)
8관	씨니 (15세)
9관	엑스맨-퍼스트클래스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